

#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김세희  
6195 / say@eugenefn.com

## OUSD 출시로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승부처

- “ 전일(7/1) 글로벌 금융 IT 기업이 결집한 Open Standard에서 Open USD(OUSD) 연내 출시 계획을 공개. Open Standard는 Stripe, Visa, BlackRock, Coinbase, Google 등 14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움으로,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출범하는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 “ 주요 특징으로는 ① 발행·환매 수수료 무료, ② 제한 없는 발행 한도, ③ 참여 파트너사에게 조건 없는 운용 수익 배분 등 **발행 수익 극대화**보다는 **유통망 확산을 우선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보다 규제 적격성과 유통망, 사용자 확보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반영한 전략으로 판단**
- “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Circle이 17% 이상 급락했는데, 이는 규제 적합 발행사라는 독보적인 내러티브 훼손과 마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선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Circle의 핵심 유통 파트너인 Coinbase가 OUSD 초기 멤버로 참여해 서클의 핵심 유통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됨. 이는 향후 수익 배분 협상력이 높이는 요인으로 중장기 투자 매력도 또한 Coinbase > Circle 순으로 판단
- “ OUSD 출시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수혜 논리를 재편하는 동시에 글로벌 달러 영향력을 심화시키는 메가 이벤트로 판단. 발행사 중심의 수익 구조를 약화시키고 실제 결제망과 사용자 보유 유통 사업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 현재도 83%가 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OUSD 출시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특히 Stripe, Visa, Mastercard 등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주주이자 수혜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AI 에이전트 페이먼트의 초기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USDC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 전 세계 주요 결제망에서 OUSD를 표준으로 채택할수록 온체인 내 달러 패권은 더욱 강화되기에, 역설적으로 로컬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음
- “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두나무, 신한금융그룹, 주요 카드사 등 13개사가 OUSD 생태계에 참여, 이는 국내 기업들 또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경쟁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또한 발행 주체보다 실제 사용자와 유통망을 보유한 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며, 발행과 유통 기능이 결합된 은행·카드사·거래소·빅테크 간 컨소시움형 모델이 유력해 보임. 이 경우 리테일 접점과 결제 사용자 확보한 네이버와 두나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

업종투자 의견

## OVERWEIGHT

###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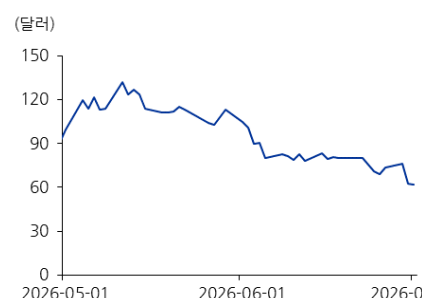
#### USDC vs OUSD 비교

구분	USDC	OUSD
운영 주체 및 구조	Circle 중심, Coinbase는 핵심 유통·수익 공유 파트너	Open Standard, 다수 파트너가 참여한 수익 배분과 거버넌스 참여 구조
발행·상환 수수료	발행 수수료 X 대규모·즉시 상환에는 수수료 0	모두 없음
수익 구조	준비금 운용 수익을 Circle이 매출로 인식하고 부를 특정 유통 파트너와 개별 계약을 통해 공유=	운영비 제외한 수익을 컨소시움 참여자에게 공유
고객 기반	거래소, DeFi, 기업, 핀테크	결제, 커머스, 은행, 빅테크, 거래소 등
리스크	금리 하락, 유통 파트너 협상력, 대체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초기 유통성 부족, 거버넌스 복잡성
산업 포지션	규제 적합 발행사 (규제 적합 발행 선점)	결제·거래 커머스 기업들이 참여한 오픈 컨소시움 (규제 적합 유통 선점)

#### Open Standard 국내 참여 기업

구분	참여 기업 수	참여 기업
금융주주	3개	신한금융그룹,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카드사	7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농협카드
보험사	1개	한화생명
빅테크	1개	삼성전자
디지털자산거래소	1곳	두나무

#### 서클 가격 추이(3개월)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6.31 기준)